상월선원 '무문관 체험관'도 문 연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앞장
수국사 등 사찰 신도회장
'사부대중 함께하는 결사'
무박 2일 정진 의사 밝혀

위례 상월선원 전경. 11일 9명이 결제대중이 동안거에 들어가면 바로 옆 비닐하우스의 무문관 체험관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올 겨울 위례신도시 상월선원(霜月禪院)에서 사상 첫 천막 동안거가 이뤄지는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정진에 참여해보고 싶다면. 물론 가능하다. 이전까지 본 적 없던 비닐하우스 형태의 천막 법당 상월선원 바로 옆, 소형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험관이다.

11일 오후3시 9인의 결제대중이 바깥문을 걸어 잠그고 선원에 입방하면, 무문관 체험관도 문을 활짝 연다. 이날 동안거 입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오후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을 지도법사로 한 대규모 토요 정진단이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면 체험관 신청자도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체험관은 스님들 곁에서 정진을 직접 하는 곳이다. 3~4명이 들어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수국사, 성남 봉국사 등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리를 맞으며 달을 벗 삼는다는 이곳 도량에 들어오면 묵언을 기본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무박2일 등의 일정으로 철야정진하며 밤을 지새운다. 휴대폰 등 수행에 방해가 되는 소지품은 입방 전 밖에서 반납하므로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재가 불자들을 중심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결제대중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지켜주고, 전국 불자들의 응원 속에 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상월선원 밴드'를 만들어 이번 동안거 야외 천막 고행 결사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권영길 수국사 신도회장도 무문관 체험관 입방을 신청한 대표적인 재가 불자다. 권 회장은 지난 4일 선원 봉불식 및 현판식에 참석하고, 곧바로 주지 스님에게 정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권 회장은 "스님들께서 석 달간 고행하시는데 신도가 되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낼 수 없다"며 "11월 중 한 번 하고 계획을 잡아, 회향 때까지 정기적으로 체험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직할교구 임원들에게도 수행에 함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다영 기자

"상월선원, 한국사회 큰 울림 될 것"

■ 기도 동참하는 원명스님

서울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등
여러 사찰 사부대중 기도 동참
국악합주단 어린이밴드도 공연
'떠들썩한 야단법당' 만들 계획

11월11일 입재에 들어간 '동안거 위례 상월선원 야외 천막 고행결사'에는 묵언하며 정진하는 스님도 있지만, 외호대중도 있다. 동안거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정진하는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사진)과 지난 2일 이야기를 나눴다.

올 겨울 원명스님은 위례 법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기도한다. "묵언 정진하는 대중들에게 힘을 주고 동참하고 싶어서 계획했다"며 서울경기 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에는 호압사, 조계사, 수국사, 봉은사, 구룡사 등에서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기도한다. 봉은사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목요일 기도에는 국악합주단 저녁공연도 예정돼 있다. 토요일에는 모든 대중이, 일요일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에서 동참하며 합창단 어린이밴드 등 활약도 고민 중이다. 여느 선방처럼 조용한 게 아니라 시장만큼 떠들썩한 법석의 장으로 상월선원을 만들 계획이다.

원명스님은 오는 16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정진 후 2회부터 오후2시부터 밤 10시까지 정진하려고 한다. 〈금강경〉 독경과 다라니 21독, 108배, 참선과 컵등을 들고 정근하는 등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 스님은 "매주 300명이상 대중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지방 사찰에서도 결합하면 기도하는 대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향할 때까지 1만 대중이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천막결사가 회향하면 종교를 초월해 한국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모습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승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다. "성철스님이 철조망을 걸고 봉암사 결사를 했던 결연한 수행에 대한 의지를 21세기에 또다시 심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출가자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를 발심하기 전, 사실 원명스님은 고행결사 소식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무문관 정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겨울 내내 천막에서 추위와 싸우며 하루 한 끼만 공양하고 묵언정진을 하는 고행을 택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보통 선방에서 하루 8~9시간 정진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다. 그래도 선방에서는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나. 따뜻하게 난방도 되고 먹고 입는 데 부족하지 않고 또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 상월선원은 그렇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됐다."

상월선원의 대중 스님들은 야외 천막에서 하루 12시간 정진하고, 일종식을 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옷 한 벌로 겨울을 난다. 원명스님은 "지금 상월선원의 일과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제 자신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따뜻한 방에서 하루 8시간 정진하며 한 끼 식사를 하고 묵언을 해본다면 상월선원 수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뼈에 사무치도록 정진하겠다고 발심한 수행자에게 토를 붙이고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 법과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발심한 스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더 나아가 함께 와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국민통합 마중물 활동 전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스님 위촉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에 도심스님(중앙종회의원)이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7일 도심스님에게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종단을 대표해 종교간 화합과 국민통합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당스님(중앙종회의원),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 원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대표도 종교평화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기"라며 "이런 때 종교평화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독일 린다우에서 열린 세계종교평화회의 참석 소회와 최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석 결과를 거론하며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종교평화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종교평화위원장 도심스님은 "종교간 평화는 물론 우리 사회와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종교평화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하는 2차 회의를 열고 11월13~14일 워크숍을 개최해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총무원장 원행스님(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지난 7일 위촉장 수여 후 신임 위원장 도심스님(왼쪽 여섯 번째) 등 종교평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

세대통합 등 7개 섹션
기관·단체 신청 가능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대 통합의 장이었던 서울노인영화제가 본선진출 작품을 들고 직접 관객들을 찾아간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스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을 찾아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진출 작품을 상영하는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다시 보고 싶거나 영화제 기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세대에게는 영화감독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영화라는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에게는 노년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발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영화를 관람하기 쉽지 않은 요양원이나 경로당에 찾아가 동년배 노인들에게 청년의 시선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인영화제는 △세대통합 △노인권익 △노인감독제작기 △새로운 공동체 △노인문화생활 △인생과 존엄 △영(YOUNG)화 섹션 등 유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총 7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영화상영과 영화소개 및 관객과의 대화 등 90분 내외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영화도슨트'가 직접 작품을 해설하며 관객들과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이나 학교, 기업, 복지관 등 영화를 매개로 노인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관 및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며, 서울노인영화제 홈페이지(sisff.seoulnoi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2020년도 달력 접수하세요!!

사찰의 개성을 살린 맞춤달력

다양한 테마가 있는 기성달력

탁상·수첩 3종 ⇨ 5종 으로 변경되었어요!!

산사의 아침, 사찰의 美 기와, 수행 修行, 금강산의 사계, 행복한 부처님, 다워니와 같이 읽는 계초심학인문 등 사부대중의 마음에 꼭 드는 13개의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41종의 품격높은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벽걸이(대·소) 13종
- 벽걸이(대) 101호~113호(305x307)
- 벽걸이(소) 201호~213호(255x260)

| 탁상 5종
- 301호 사찰의미기와
- 302호 수행
- 303호 금강산의사계
- 304호 다워니(카툰)
- 305호 말씀(캘리)

| 수첩 5종
- 401호 동자승이야기
- 402호 사찰의미기와
- 403호 수행
- 404호 자연풍경
- 405호 말씀(캘리)

| 미니 5종
- 501호 산사
- 502호 동자승
- 503호 연꽃
- 504호 행복한부처님
- 505호 하루명상(캘리)

사찰만의 '독자적인 달력'을 제작 해보세요!!

사찰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맞춤(독판)달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찰 포교 및 사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찰만의 색깔이 담긴 달력을 만들어드립니다.

최소수량 (제작가능)
벽걸이(대·소), 탁상달력 : 1,000부 이상
수첩, 미니달력 : 3,000부 이상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주문 ▸ 디자인 작업 ▸ 최종 확인 ▸ 인쇄 및 제본 ▸ 발 송

※11월에는 달력주문량이 급증하오니 늦지않게 접수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주)도반CA 달력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230~2호 일반(기성)달력 02)720-0677, 71, 73 맞춤(독판)달력 02)720-0669 팩 스 02)720-6019